

중국 주식시세 여러 호재로 올해 최고 기록

2014.8.5 참고소식

[로이터 홍콩 8월 4일 보도] 증권감독기관이 발표한 호재 소식의 영향으로, 월요일 중국 주식시장 증가는 7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하였다. 금융업과 석탄 산업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였다.

지난 금요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대변인은 중국 주가의 회복에 대해 여러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발표한 바 있었다.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시장 유동성이 비교적 충분하며, 개혁조치들이 점차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특히 “후강통(상해-홍콩 주식시장 상호주식투자)” 시범운영 계획이 호재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월요일 상해종합주가지수는 1.7% 상승한 2222.33으로 마감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10일 이래 최고 기록이다. 상해-심천 300지수는 2% 상승하며 마감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최고 기록이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대변인의 호재 소식 발표의 영향을 받아, 중신(中信)증권과 하이통(海通)증권 주가는 각각 6.1%, 4.3% 상승하였다. 상기 대변인은 증권감독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권산업의 창의적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최대 석탄생산기업 선화(神華)의 주가는 2.6% 상승하여 올해 최고를 기록하였다. 제일재경일보 보도에 따르면,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7차례 가격 하락을 겪은 이후, 이 기업은 8월 1일자로 동력용 석탄 가격을 올렸다. 규모가 작은 다른 석탄기업들의 주가는 5% 이상 상승하였고, 어떤 석탄기업은 심지어 하루 최대상승폭 10% 상승하였다.

[로이터 북경 8월 4일 보도] 월요일 중국 상해주가지수는 1.7% 상승하여 거의 8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번 주가상승은 주로 에너지 및 증권 기업이 주도하였었다. 반면 창업반(Chinext)지수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라, 장내에서는 여전히 가치평가형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샤오샤이(邵帥) 서우창(首創)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승은 지난주 금요일 조정을 거친 후, 일정부분 빠져나갔던 자금이 재투입 기회를 찾은 측면이 있고, 여기에 증권업의 상승이 시장에 신뢰도를 높여주는 작용을 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그는 증권사, 고속철도 등 신규 핫 아이템들이 시장의 인기를 차지하였고, 증권업계 상장회사들의 상반기 양호한 실적이 이를 지탱하였으며, 리스크통제지표를 하향 조정한다는 소식이 증권업계 주가의 가파른 상승을 이끄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월요일 중국증권보 보도에 따르면, 증권감독위원회는 근시일 내에 <증권회사 리스크통제지표 관리방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고, 이미 여러 증권회사에 의견수렴고를 발송하였는데, 이에는 "순자본/순자산"을 비롯하여 리스크관리지표를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로이터 북경 8월 4일 보도] 중신(中信)증권이 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주식시장의 이번 활황세는 "후강통(상해-홍콩 주식시장 상호주식 투자)" 정책에서 주로 기인하였고, 경제회복과 유동성완화 등도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후강통"에 따른 2차 상승국면이 이미 하반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8월 주식시세에 대해 "신중한 낙관"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8월 중국 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하겠으나 중장기적인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향후에도 통화정책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수준의 소폭 조정만 지속되고, 8 월에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태가 유지되며, 특히 리스크프리미엄이 다소 하락할 것이라고 보았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투입이 더 확대되기는 어렵고, 구조전환이 더욱 중시될 것이라고 보았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의 통화정책이 "총량안정"과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완화"를 기조로 한다고 명확하게 제시하였지만, 올해 상반기 소위 "특정분야 완화"가 실제로는 통화 총량의 확대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통화량 측면에서, M2 증가율은 13.5-14.5%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